

제14대 장기식 전국청년협의회장 취임

“자유수호와 통일선봉대 활동에 청년이 앞장설 것”



◇장기식 신임 청년회장이 김경재 총재로부터 전국청년협의회 깃발을 받아 흔들고 있다.

연맹 전국시·도청년협의회는 9월 20일 서울 중구 장충동 자유센터 샤인홀에서 제13대 김신우 회장과 14대 장기식 회장이 취임식을 개최했다.

윤재욱 국회의원(대구 달서구)과 김경재 총재, 정광영 부총재, 이석열 대구시지부 회장과 최선남 전국시·도여성협의회 회장 등 내빈과 청년회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는 김신우 회장의 이임사, 장기식 신임 회장 취임사와 전

국시·도청년협의회기 이양, 특별 유공자 공로패 전달, 기념촬영 등으로 진행됐으며, KFF 대학생 DMZ국토대장정 참여 우수학생 2명에 대한 장학금 전달도 있었다.

이날 장기식 신임 회장은 취임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연맹 통일선봉대 활동에 앞장서 나가는 활력 있는 청년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청년들과 함께 연맹의 위상을 높이 세우도록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김경재 총재는 축사를 통해 “최근 북한에 의한 한반도 긴장이 더욱 고조되는 가운데 연맹 청년협의회는 사회 통합과 국가 안보를 위해 국민적 에너지를 모으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며 “오늘 이·취임식을 계기로 전국 청년협의회 모든 청년 회원이 국민 대통합과 안보의식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6대 사업 실천의 마중물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7년 분회 회장 교육 시작

부산-울산지부 회장단 대상, 통일선봉대 활동 역량 다져

연맹 자유통일연구원은 9월 19일 부산 초읍동 자유회관에서 2017년 1차 읍·면·동분회 회장 교육을 실시했다. 부산시지부 분회 회장과 청년·여성회장, 울산시지부 분회 회장 등 320여 명을 대상으로 열린 이날 교육에

김경재 총재와 양재생 부산시지부 회장 등 내빈이 참석해 격려하기도 했다. 이날 교육은 노희상 원장의 ‘최일선 통일선봉대 활동 방안’, 김영찬 부산시지부 전문교수의 ‘한반도 안보상황과 국제 정세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강의 등으로 진행됐으며, 교육에 앞서 북핵규탄 결의대회를 갖기도 했다.

여수지회 안보현장 견학



전남 여수시지회(회장 전영택) 회원 1000여 명이 9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과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등을 방문, 안보현장 견학을 실시했다.

성명서

북한 외무상 리용호 기자회견, B-1B 전개에 겁먹은 기색 역력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김경재)은 9월 25일 밤(현지시간) 뉴욕에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불시 기자회견을 예고한 뒤 “말싸움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한다”고 물러선 것은 지난 23일(한국시간) 미국 최첨단 전략 폭격기 ‘B-1B 랜서’가 휴전선 최북단을 무력 시위한 결과임을 강조하며 아래와 같이 성명한다.

1. 우리는 6·25남침에서 최근 핵미사일 도발과 각종 협박에 이르기까지 국제규범과 관습을 상습적으로 조롱해온 북한의 전례에 비추어 리용호가 “유엔헌장은 개별국의 자위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국제법적 관례에 호소하고 말싸움이 행동으로 확대되는 것은 안된다는 등 이성적 호소를 한 것은 마치 경찰에게 체포당하기 직전 피의자 인권이나 변호사를 애타게 찾는 불량배를 연상케 하는 촌극임을 선언한다.

1. 우리는 미국의 주력 폭격기 ‘B-2 스피릿’과 ‘F-22 랩터’는 현재 북한이 보유한 그 어떤 방공 레이더에도 잡히지 않는 첨단 스텔스기로서 은퇴한 미 공군 조종사가 이미 비밀리에 평양 상공에서 폭격을 위한 강하 훈련까지 해오고 있음을 증명한 바, ‘미국 폭격기들에 대해 자위권을 행사하겠다’는 리용호의 기자회견은 한마디로 밀천이 다 떨어진 노름꾼의 측은한 ‘블러핑(거짓 술수)’임을 천명한다.

1. 우리 350만 회원은 미국의 군사적 압박으로 북한이 한발 물러섰다 할지라도 김정은 신격화 체제 존속을 위한 군사적 야욕을 예의주시할 것이며, 이번 리용호 회견을 계기로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한 강력한 국방과 국민통합만이 북핵 위기를 한반도 자유통일의 기회로 승화시킬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선언한다.

2017년 9월 26일



한국자유총연맹
KOREA FREEDOM FEDERATION

350만 회원 일동